

# 폭염 속 온정… 해남서 ‘여름 김장김치 나눔’ 첫 선

두성재단, 500포기 소외계층 전달  
더위 속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  
양념 주재료 등 지역사회 기부도  
김치 전달시 애로사항 상담 병행

“해남 현산면에 사시는 어르신네는 매운걸 잘 못 드세요. 김치에 양념을 적게 넣어주세요”

김장은 겨울철에만 이뤄진다는 편견을 깨고 한여름 폭염에도 지역 소외이웃을 살피기 위한 두성재단의 ‘여름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해남에서 펼쳐졌다. 지역 단체·군민들의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여름 김장김치는 관내 소외이웃에게 전달된다. 더위에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소외이웃을 위한 배려차원이다.

9일 오전 9시 해남종합사회복지관 1층 다목적강당. 강당안에는 위생복과 앞치마, 고무장갑으로 중무장한 직원들이 소금물에 절여진 500포기의 배추를 전달하느라 분주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대표이사 정영희)의 주최로 마련됐고, 정영희 대표이사, 명현관 해남군수 부인 임경자씨, 김영동 해남종합사회복지관장과 해남땅끝와이즈맨, 해남목련로타리클럽 회원 등 50여명이 김장김치 담그기에 동참했다.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지역 단체·군민들의 후원도 잇따랐다.

국제와이즈맨해남땅끝클럽 100만원, 천일식당 30만원, 김나원씨 100만원, 김신욱씨 30만원으로 총 260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김치양념 재료로 쓰인 후원물품 역시 담지가 이어졌다. 국제장례식장 고춧가루, 양파 등 50근, 김재봉씨 양파 100kg, 김숙기씨 고춧가루 20근, 박경욱씨 고춧가루 10근, 정명욱씨 고춧가루 10근, 박혜순씨 고춧가루 10근, 김혜영씨 간 마늘 11kg 등이다.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달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합심해 급식소에 구비된 믹서기 등 요리도구를 활용해 손수 양념을 만



정영희 두성재단 대표이사, 임경자(명현관 해남군수 부인)씨, 해남땅끝와이즈맨, 해남목련로타리클럽, 김영동 해남종합사회복지관장과 직원 등 50여명이 9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여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들었다.

김장에 쓰인 배추 역시 전량 지역 절임 배추를 사용했다. 해남군은 전국 봄배추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며 연간생산량은 5만여톤에 달한다. 2~3월 파종해 5~6월 수확하는 조생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어 여름철 김장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께가 되자 관내 읍·면 별로 전달될 김치 500포기가 반찬통에 담겨 쌓아 올려졌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봉사자들은 지친 기색없이 김치가 소외이웃에 전달될 생각에 미소가 가득했다.

봉사자 김나원씨는 “여름철 김장김치는 겨울철 김장김치보다 더 쉽게 물러질 수 있어 소금 농도와 절임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해서 까다롭다”며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금을 기부하고 봉사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해남군의 전체 인구는 6만2668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3965명·38%, 기초수급자 4803명·7.6%, 차상위 1147명·1.8%에 달한다.

이날 담은 김치는 직원들이 대상 가정

을 방문해 1가구당 2포기씩 직접 전달한 데 이어, 애로사항을 듣는 등 상담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두성재단은 매해 겨울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오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와 폭염에 따른 식생활 악화,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영동 해남종합사회복지관장은 “최근 고령노인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겨울김장을 하는 가정이 줄었고, 겨울에 나눔을 받은 김치가 소모될 시점이다”며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김치를 나누는 게 아닌 건강을 살피고 이웃 간 정서적 유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여름철 김장 나눔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두성재단은 김장김치 나눔 외에도 설립초기부터 두성봉사단을 결성해 지역민들의 수요에 따라 집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홀몸노인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밑반

찬을 배달하고 있다.

정영희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여름김치 나눔을 통해 1인 가구 기준 식비 10~15%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5월에는 재단이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향후에도 소외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지속적인 나눔·복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은 1988년 고(故) 승정 이정일 전 국회의원이 문화, 교육, 의료 여건 등에서 고향 해남이 낙후된 점을 보고 1988년 4월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객역의 사재를 들여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해남과 진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시설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어린이집, 진도지역자활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프로젝트사업단 등을 통해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진용 기자

영암군, 구제역 종식 선언  
이동제한 해제…주의단계 전환

전라남도 영암군이 올해 3월 13일 첫 구제역 발생 이후 114일의 총력 대응 끝에 종식을 선언하고 평소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심각’, ‘주의’, ‘관심’ 단계 순으로 방역 수준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 통상 관심 단계에 이르면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군은 3월 심각 단계를 발령한 이후 지난달 17일 3개 권역의 방역대 238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이후 자연항체가 생긴 25농가 675두의 조기 도태, 이동제한 미해제 4농가의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며 미검출이 확인되자 전달 구제역 방역 단계를 최종 관심 단계로 하향해 평소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군은 구제역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대응상황실을 가동했다. 발생농장 방역대 3km 내 이동 제한, 방역조소 설치, 긴급 백신접종, 생석회 살포, 분뇨처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차단 방역 조치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 방역을 시행했다.

군은 이달 말 축산농가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감염병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 분석·평가하고, 지역사회의 대응 전 과정을 정리한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땅끝달달야행’ 내일 개막  
해남군 원도심 일원서

해남 원도심의 여름 밤을 책임지는 ‘땅끝달달야행’이 더욱 풍성하고 시원한 콘텐츠로 돌아왔다. 11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해남읍 읍내길 차 없는 거리와 매일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더위를 피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시간대로 운영된다.

달달야행은 프리마켓과 거리 공연, 체험 행사, 야시장 분위기를 더한 해남 대표 도심형 야간축제다. 행사장에는 지역특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즐비하고, 누구나 거리 곳곳에 마련된 탁자에 앉아 음식을 즐기며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의 ‘달밤음악 콘서트’와 함께 주민 참여형 ‘달밤가요제’가 열린다. 가요제는 예선을 거쳐 오는 25일 왕중왕전이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특히 젊은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EDM 공연 ‘나이트 오브 라이트’는 오는 18일과 8월 1일 두 차례 열려 해남 도심의 여름 열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호수제맥주 무제한 나눔 행사와 함께, 지역 상권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을 위한 짭 짭 없는 돌림판 이벤트, 특산물 경매도 열린다. 여름을 겨냥해 물총놀이, 물풍선 터트리기 등 더위를 식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한편 땅끝달달야행 프리마켓은 오는 14일까지 판매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해남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 “천연암반수로 물놀이 즐기세요”…월출산 기찬랜드 12일 개장

16년 무사고…음식배달 서비스  
맨손 민물장어 잡기 이색 체험

전라남도 영암군의 대표 여름 물놀이 휴양지 ‘월출산 기찬랜드’가 오는 12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2008년 개장 이후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 없이 16년 연속 ‘무사고 운영’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 기찬랜드는 안전까지 겸비한 자연 친화적 물놀이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찬랜드는 월출산 자락의 맑은 계곡수와 천연 지하 암반수를 활용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다양한 크기의 야외 풀장

과 실내 물놀이장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장에 앞서 수질 검사, 위생 점검, 안전요원 교육 등도 마무리됐다.

개장 당일인 12일에는 피서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하이라이트는 ‘맨손 민물장어 잡기 체험’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실내 풀장 인근 7호 풀장에서 민물장어 600마리가 방류되며, 참가자들은 접수 부스에서 팔찌를 받

은 뒤 입장해 장어를 직접 잡는 이색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잡은 장어는 ‘기운찬 천하장어’ 부스에서 초벌구이로 교환해 즉석에서 시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민물장어연합회 영암지회, 민물장어양식수협, 생산자협회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특산물 홍보와 관광 연계를 도모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눗방울 놀이 △물총 대전 △자석 낚시 △초코아트 등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도 운영된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관에서는 무화과 아이스크림, 여름 과일 등 영암의 대표 농

웃음치료는 웃음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유머 감각을 익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참가자들이 서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유하며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원예치료는 꽃 장식과 공기정화 식물 심기 등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다육식물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

정, 투명 용기를 활용한 미니 정원 꾸미기 등 창의적인 체험도 병행됐다.

이번 프로그램 수료식에서는 한국서에 협회 청년분과 위원이자 캘리그라피 강사인 류하 노영민 작가가 재능기부로 제작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수료증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시드림스타트, 양육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목포시드림스타트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심리검사 결과 우울·불안·스트레스 위험군으로 분류된 양육자 17명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

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강사의 지도로 원예치료와 웃음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